조류 인플루엔자 및 각국의 지원 동향

1. 인도네시아 조류 인플루엔자 동향

■ 3.9일 현재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는 총 21명이며 3.4일 숨진 10세 소년의 사망 원인도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밝혀질 경우 22명이 될 것이라 함.

- 특히 지난 2003년 하반기에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래로 2005년까지 총 12명이 사망하였으나 2006년에 들어와 2개월 동안 9명이 발생하는 등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가 급속히 증가되는 추세임. (치사율 75%, 총 28명 감염자중 21명 사망)
- 또한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로 감염 의심으로 치료 받고 있는 환자는 8명임.
- 주재국 보건부는 인체간 감염 사례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WHO 등 관련 국제기구는 인체간 감염 가능성을 우려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상황임.

■ 지난 2월에 주재국 보건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타미플루를 전국 4,000개 보건소에 보건소당 100정씩 총 400,000 정을 배포했음.

- 시티 파닐라 보건장관은 3월말까지 타미플루를 추가로 150만정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보 추진하여 총 1천 200만정을 비축할 계획임을 밝힘.

■ 조류 인플루엔자 대책 예산

- 바크리 복지담당 조정장관은 주재국이 향후 조류 인플루엔자의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총 US$9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.
- 동 장관은 주재국의 조류 인플루엔자 예산 배정 계획은 향후 3년간 US$6천만 정도이며 나머지 US$ 8억 4천만은 각국의 지원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.

※ 현재까지 국제사회에서 주재국에 지원하거나 지원 계획을 밝힌 금액은 US$ 1억 4천만 정도임.

2. 각국 지원 동향

■ WHO

–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시 및 방역, 감염 감시 기술 지원 등

– 각국의 지원 자금으로 해당 국가와 협의하여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및 대책 사업 추진 및 기술 지원

■ FAO

– 전문가 파견 및 각국 지원사업 기술 지원 및 자문

■ 미국 : 총 US$11백만

– 조류 인플루엔자 조기 경보 및 초기 대응 지원 프로그램

– 커뮤니케이션 및 국민인식 제고 프로그램 등

– 전문가 파견 등

■ 호주 : 총 US$15.5백만

– Tamiflu 10만정 기증, 전문가 파견, 감염 동물 처리 기술 지원

– 주재국 정부, WHO 및 FAO와 지원 프로그램 협의 중임.

■ 일본

– 아시아 지역을 위하여 US$135백만 규모의 지원 계획을 갖고 아시아 각국, WHO, FAO, OIE(국제수의 사무국)과 사업 추진 중임.

※ OIE를 통하여 국가수의 서비스, 긴급계획, 홍보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

※ WHO를 통하여 감시능력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

– 그 외 수의전문가 지속적으로 파견

■ 캐나다

– US$10백만을 지원키로 약속

– WHO 통해서 앞으로 5년간 감염 질병 대책 프로그램 추진 계획임.

■ 네덜란드

– 주로 양자 회의를 통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

– 농업부와 현장조사 사업 추진(백신 주사 효과성 분석 등)

■ 한국

– 조류 인플루엔자 진단시약(US$25만 상당, 2005.11) 지원

※ (주)에스디에서 주재국 농업부에 기증

■ 세계은행 및 EU

– 지난 1월 16-17일 북경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인도네시아에 US$12백만을 지원키로 약속

[자료: 주인도네시아 대사관]